

근대 민족주의 이념 실행으로 인한 한자문화권의 와해-지식 전이의 단절성 형성 기제를 중심으로

허철(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절대적 '지식'의 정의와 그 변천 과정은 특정 역사 시기가 진리와 정당한 지식을 판단하는 인지적 기준선(Epistemic Standard)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기준선의 이동은 근대 이후 강력한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의 확산에 의해 동력화되었고, 궁극적으로 문화권 내부 지식 체계의 근본적인 분리와 격차를 초래했다. 한자문화권의 형성과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이론 도구가 필요하다.

푸코(Michel Foucault)는 지식이 결코 중립적인 산물이 아니라 권력의 장치와 긴밀히 얽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시대의 지식 체계가 특정한 '에피스테메(épistèmè)'에 의해 그 가능 조건이 놓여지며, 이러한 에피스테메가 전환될 때 사회의 지식 질서와 권력 구조가 동시에 변동한다고 보았다. 한자문화권이 유학 경전과 한문 문헌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적 에피스테메에서 국문 및 서구 학술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식 구조로 전환된 것이 바로 이 이론의 선명한 사례이다. 결국 푸코의 '에피스테메'는 각 시대가 어떠한 규칙에 의해 절대 지식의 기준을 설정하고, 무엇을 '비-지식' 또는 '저급한 지식'으로 배제하는지를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한편, 문화적 동화 이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래의 지식이 새로운 기준으로 수용, 저항, 통합, 재창조의 다양한 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혼종성(hybridity) 개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문자 및 언어 변천은 전통 한문, 근대 민족 언어, 그리고 서구어 등 이질적 요소들이 혼합된 복합체였으며, 그 속에서 다양함이 혼재되어 새로운 형태로 발현되는 생명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tari)는 리좀(Rhizome)을 위계적·중심화된 수목적 지식(Arbor) 구조와 대비되는 개념도 유용하

다. 그들이 말한 수목적 지식은 전통 한문 경학 체계와 근대 국가의 분과 제도를 설명하는 은유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대비되는 리즘 개념은 제도적 권력 구조 바깥에서 비주류 지식이 비선형적이고 우발적인 방식으로 보존되고 전환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근대 이전, 한자와 유학, 한문 문헌은 동아시아 각국이 공유하는 지식 시스템과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체계를 구축하는 공동의 초석이었으며, 지식 체계의 근본적 ‘에피스테메(épistèmè)’로서 본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서구 세력의 동점(東漸)과 제국주의의 확장은 각국에 위기를 강요하며 기존 지식 체계 전체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다. 청나라는 아편 전쟁의 결과인 난징 조약(1842년 8월), 조선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년 5월), 일본은 미일 화친 조약(1854년 3월), 베트남은 제1차 사이공 조약(1862년 6월)을 체결했으며, 이러한 불평등 조약들은 지식 전환의 외적 추진력이 되었다. 당시 엄복(嚴復), 양계초(梁啓超), 유길준(兪吉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로 대표되는 아시아 지식 엘리트들은 서양의 힘이 그들의 제도와 학술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하고, 실용적인 서양 근대 학술로 전통 한학을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첫째, 봉건국가를 버리고 근대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서구식 법치와 민권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근대 국가를 건설해야 자주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전통 사상 비판이다. 이들은 모두 유교 경전 중심의 공리공담과 봉건적 신분 질서를 비판하고 서구의 개인 자유와 평등 사상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마지막으로 교육 제도 개혁을 말하였다. 현실에 무익한 한자와 한학 대신, 국가 부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학, 법률, 경제 등 실용적인 서양의 근대 학문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식 선택의 근간에는 지식 습득의 근본인 문자 및 언어의 변화가 필수적이었다. 그들이 말한 근대 공교육 시스템은 언문일치 정책과 서구 분과주의 학술 체계의 도입이라는 두 축을 통해 전통적인 한문 중심의 ‘에피스테메(épistèmè)’를 급격히 와해시키고, 국가와 산업 사회에 필요한 인재상인 근대성을 교육과정 지식에 부여했다. 이 현상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한자문화권 전반에서 나타났으며, 한자와 한문의 지위는 핵심 교육 지식에서 주변적 교양 지식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민족주의라는 명분 아래 전통 학술을 분과주의적 지식으로 격하시키며 다른 정치적,

권력적 선택을 했고, 이러한 선택의 다양성이 오늘날 중·일·한 면모의 차이를 낳는 기제가 되었다.

결국, 이러한 지식 전환의 추진력은 "근대 민족주의" 관념이었으며, 이는 전통 유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닌 "비판적 재구성"으로 이끌었다. 지식 엘리트들은 전통 학문과 문자 언어에 대해 이중적 처리를 감행했는데, 첫째, 기능적 격하로, 그들은 유교 경전 중심의 "헛된 학문"과 "낡은" 제도를 비판하며, 유학이 "절대 지식"이자 "경세제민"의 핵심 체계로서 갖던 지위를 부정하고, 지식의 핵심에서 주변부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또 다른 현상을 보이는데, 그것은 민족적 보존의 주장이었다. 그들은 유학의 정신적 핵심(충효, 수신, 집단 윤리)을 "우주적 진리"나 "천하 질서"로부터 분리하여, "민족 정신"과 "도덕 교양"을 위한 도구로 재정의했다. 유학은 이로써 민족 윤리의 일부로 재구성되어 근대 국가의 도덕적·문화적 정체성 구축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보존-재구성" 전략은 지식 권위가 한문 유학 체계에서 "부국강병"에 필수적인 서양 과학 및 국족 언어 체계로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식 전환 과정에서 각국이 언어 문자라는 지식의 매개체에 대해 서로 다른 정치적, 권력적 선택을 한 것이 '지식 이전 장애'의 구조적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차별화는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탈(脫)한자 문화" 또는 "탈(脫)중국 중심화"를 추구한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첫째, 각국 문자는 자국화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한글 전용"을 채택하여 문화적 주체성을 강화했고, 중국 대륙은 "한자 간화 방안"을 추진했으며, 일본은 "신자체"와 현대 일본어를 공식 매개로 확립했다. 이러한 민족 국가의 이익에 기반한 문자 기준의 차별화는 한자가 공동 서면어로서 갖던 기능을 직접적으로 상실했음을 말한다. 둘째, 전통 지식의 "분과화" 격하이다. 전통적 경세학 문이었던 유학이나 역사 문헌 등은 "국학"이나 "민족 문화"의 일부로 재분류되어 서구 분과 지식 체계에 편입되었고, 현대 학술에서는 종래의 핵심적 지위를 상실했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은 결국 '지식 교류의 장애'라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형성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장애로 나타났다. 첫째, 지식 기준과 가치의 재생성이다. 공동의 한문 "에피스테메(épistèmè)"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각국은 자국어와 번역 습관에 기초하여 철학, 법학, 사회학 등에서 서로 다른 학술 용어 체계를 창조했다. 이러한 지식 온톨로지 상의 분기는 상호 학술 교류의 깊이와 폭을 저해했다. 둘째,

매개 장애의 고착화이다. 한국의 한글, 중국의 간화자, 일본의 신자체는 각기 독립된 서면 매개 시스템을 형성했으며, 이는 학술 문헌의 직접적인 독해를 어렵게 만들었고, 동일한 개념조차 '재번역'과 '재해석'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게 만들었다. 셋째, 학술 분과 장애의 심화이다. 서구 분과 지식 체계의 도입 및 고착화는 전통적인 경학-사학-자학 분류를 대체했고, 각국의 대학, 연구 기관, 정기간행물 등 제도적 분과화는 국가 간 지식 교류를 더욱 약화시켜 지식계가 "각자도생"하는 국면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처럼 한자문화권의 근대적 분리는 민족주의 관념 아래 "구국강병"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내적 동력에 의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각국이 지식 기준과 언어 매개에 대해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전통 유학의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 지식 권위의 이전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의 지식 교류의 장애라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한자문화권의 오랜 "지식 공유 공동체" 모델을 종식케하는 근본적 이유가 되었다.